

### 부록 3 - 남아 있는 과제 : 선교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인간성<sup>1)</sup>

모든 인류에 관한 어떤 관점도 단순화하려는 노력이 없이는 명료하게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선택하여 특별한 축복과 책임을 부여하시고 그 권위와 축복을 이 땅의 모든 가족들(families)에게 확장시키려 하셨다(창 12:3; 18:18, etc.).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과제가 얼마나 크고 복잡한 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다.

어쨌든 4,000년이 지난 지금 이 땅위의 모든 족속들의 반 이상이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 는 토인비가 말하는 “유대적인”(Judaic)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사람(예수님)의 구속적인 사역을 통해(요 8:56) 직접적인 축복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간접적인 영향까지 고려해 본다면 전 인류의 9/10정도는 다른 요소들과 섞여 있을 지라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지금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민족들과 나라들(Nations and Countries)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민족”(nations)이라는 단어를 대할 때 “정치적인 독립체”(political entity)나 “나라”(country)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이 아니다. 더욱 밀접한 번역은 그리스어인 “ethnos”에서 온 것인데, 그 단어는 민족들로 번역되었을 뿐 아니라 “종족 단위”(ethnic units), 또는 “백성”(people), 또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이방인들”(heathen or gentiles)로 번역되었다.

어떤 경우에도 오늘날 우리가 정치적인 독립체로 생각하는 나라를 의미하지 않는다. 더욱 정확한 용법은 체로키로 알려진 미국에 있는 인디안들의 종족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체로키 종족”(the Cherokee nation)일 것이다. 구약에서도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그중 한 가지는 gam이란 단어이다(1,821회). 이것은 백성(people)이나 단일의 인종이나 부족(race or tribe), 또는 신명기 4:6과 28:37의 특별한 가계(lineage)를 의미한다. 또 다른 단어는 미쉬파게(mishpahgeh)로 구약에서 267회 사용되었는데, 혈족이나 친척들의 작은 단위들을 언급할 때 주로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2:3에서 사용되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집(house)은 현대 영어로는 가족(family)을 말한다. 나라나 정치적인 독립체의 개념은 신약과 구약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개념이다. 나라들이 아니고, 오히려 종족 전체나 종족(people)그룹이 성경에서 숫자들을 언급할 때 암시된 개념들이었으며(계 5:9, 10:11) “민족”(nation)이라는 단어로만이 아니라 백성들과 종족들과 방언들과 혈족들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1) Ralph D. Winter, *Perspective*, pp.8-16-8-23에서 재인용함.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알았다(백성 또는 민족들). 바울은 하나님께서 놀라울 만큼 다양한 인류의 문화적 모자이크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결론지은 새로운 교회의 선두주자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신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문화를 버리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바울은 이것이 오랫동안 숨겨진 비밀이었지만 지금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엡 3:4).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이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었다. 이방인들 중에는 이것이 힘든 일이기도 했지만, 바울 시대의 소수의 개종자들은 그렇게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그들은 본능적으로 그러한 신분의 변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느꼈는가?). 그들은 바울로 하여금 그들의 백성들, 즉 이방인들을 위해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방인의 회당을 세우도록 하였다.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신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문화를 버리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되지 않고서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 새로운 것은 획일적으로 되지 않고서도 일치할 이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되지 않고서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

많은 미국인들은 중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민족적으로 중국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즉 그들을 “한족”(Han)인 중국인으로 생각한다. 또는 소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민족적으로 러시아인으로 여겼다. 그러나 연합을 추구하는 중화민국 정부에서는 중국에 수많은 소수 민족들이 있으며, 이들은 명백하게도 중국에서 태어나 수 백년 동안 살았지만 한족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더군다나 한족 자체도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서로 의사 소통을 할 수 없는 언어들이 적어도 100개 정도나 된다! 인도에는 3,000개의 종족들이 있는데 그들 중 100개의 종족들 안에만 소수의 기독교인이 있을 뿐이다. 소련 역시 서로를 정치적으로 연결해 주는 것 외에는 공통점이 없는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선교 단체는 그 단체의 목적을 “모든 민족들 안에 사역자들을 증가시키는 것”이라 했는데, 아직도 수년 동안 그 단체는 얼마나 많은 나라들에서 사역을 펼치고 있는 지에만 관심을 가질 뿐, 그 단체가 몇 개나 되는 성경적인 의미의 민족들을 접촉하고 있는지, 또는 그러한 종족들이 견고한 기독교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또 다른 뛰어난 선교 단체가 ‘민족을 제자화하는 것’을 제목으로 책을 출판하였는데, 거기에는 한 “민족”(nation)안에 있는 수 천명의 사람들을 위해 한 개의 교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 선교 단체 지도자들의 생각은 명확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민족을 그들이 말하는 성경적인 민족들(biblical nations)로 이해하기보다는 여러 나라들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 책의 제목은 애매모호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처음으로 이 책의 제목을 들으면 이상하게 여겨질 지라도 수천 명의 사람들을 위한 한 개의 교회를 세운다는 목표를 갖는다는 것은 확실히 가능한 일이다. 이를테면 인도라는 한 나라에도 3,000개의 성경적으로 정의된 민족들이 있는데 이들 중 아직 절반도 복음화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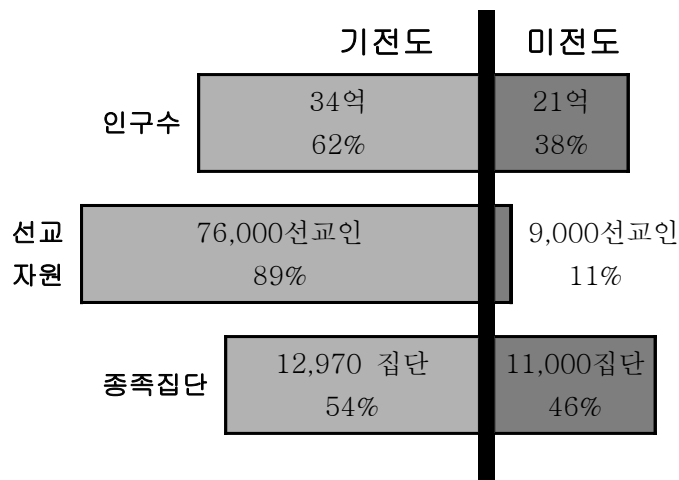
따라서 이 세계를 “종족”(peoples)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성경적일 뿐 아니라 매우 전략적이다. 왜냐하면 한 종족 안에서는 한 가지의 타문화권 선교와 교회 개척만 하면 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전략은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선교들보다 더욱 전략적이다. 더욱이 “종족”(people)이란 개념은 사람들을 단순한 개인으로 보지 않고 고유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개종하면 그 사람은 전략적으로 그가 속해 있는 사회에 자연스럽게 다리의 역할을 하게 된다.

### 제 3기의 주어진 과제

우리는 개신교 선교에 있어서 제 3기라는 마지막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믿는다. 내가 이렇게 믿는 이유는 우리의 세계가 전체적인 혼란가운데 있기 때문은 아니다. 역사상 수 차례에 걸쳐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과 핍박과 기근과 모든 면에서 재난이 있어 왔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가장 결정적인 장소는 선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가 재림하기 전에 복음이 먼저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러한 일이 가시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명되고 있다(마 24:14). 인공위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 이렇게 한다면 이 구절이 의도하는 바대로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의 언어로 들을 수 없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종족의 사회구조와 언어권 안에 각각 한 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가능하다. 이 일은 정말로 2000년에 이루어질 것이다.

### 얼마나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그런데 그 일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이 과제에 집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선교사들과 기독교 사역자들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복음화하는 것보다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진 곳에 가서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갖도록 하는데 주력한다. 다음의 표를 자세히 살펴 보라. 이 도표는 현재의 선교가 이 세계의 개인들과 종족 집단에 반해서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 오직 9,000명의 복음 사역자들이 11,000개의 종족 집단(21억)에 집중해서 사역하고 있는 반면, 이들의 8배나 되는 사역자들이 복음을 들은 종족 집단에서 사역하고 있다. 얼마나 불균형한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각각의 한 사람을 위해 적어도 그들의 문화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 이상 있다는 것이다. 복음을 듣지 못한 감춰진 사람(Hidden People)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의 선교사는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가는 8명의 선교사보다 더욱 낫다!



1974년 스위스의 로잔 회의에 참석한 나는 이러한 사실을 신랄하게 지적하였다. 내가 강단에서 내려와서 인도의 사무엘(George Samuel)을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문화와 현재의 선교지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였다. 조지는 예전에 핵물리학자였으며 명석한 과학자였기 때문에 결코 숫자에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자. 그는 두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서 나에게 말했다. “랄프, 나는 현재 인도에서 행해지는 전도의 노력에 대한 세심한 연구를 마쳤네. 그리고 나는 인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인도인 지도자들의 98%가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네. 그리고 이들과 동일한 문화권에 있지만 비기독교인들이 있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은 별다른 관심거리가 되지 못한다네.”

나는 깜짝 놀랐다. 마침내 나는 더듬거리면서 말했다. “그러나 조지, 나머지 2%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분명히 그들은 적어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 그들은 동일한 사회 안에서 E-1의 전도를<sup>2)</sup> 하고 있다네”라고 말했다.

“당신은 아무도 인도에서 타문화권의 최전방에 나가지 않는다고 나에게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라고 하며 나는 고집스럽게 말했다.

“물론 미국의 선교사들은 타문화권의 최전방에서 사역하고 있지.”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야. 그들이 참으로 타문화권에서 사역하고는 있지만, 그들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선교의 최전방을 넘어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들은 마드라스에 와서 타밀어를 배우기 위해 최전방을 넘어 왔네, 그러나 그들은 이미 교회가 있는 지역으로 가고 있네. 내가 알기로는 그들은 더 이상 최전방에서 일하는 타문화권 선교사가 아니네.” 그러자 그는 내 말에 동의했다.

6년 후인(1980년)오늘날에는 상황이 조금 변했을 것이다. 아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더욱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라는 목소리들이 높아졌기 때문이리라. 이 일을 하는 몇 개의 단체들이 있다. 그 중에는 ‘the Friends Missionary Prayer Band’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들은 경우에 따라서 교회가 없는 지역의 문화권으로 들어간다.

## 더 많은 선교지원자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과제는 불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조정해서 종족 집단(people group)들 속으로 들어가서 전도하고, 자생적인 교회들을 세우는데 집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21억의 개인들을 전도하는 것에 대해 말하지 말고 11,000의 숨겨진 종족 집단(Hidden People Group)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에게 각각 한 사람의 선교사를 배정하려면, 11,000명의 선교사 지망생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49,000명의 진실한 기독교인당 1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셈이 된다. 어떤 최전방에는 수백만명의 선교사들이 필요할 것이고, 분명한 것은 한 명의 선교사란 한 부부보다 더 많은 숫자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서 배출될 미래의 선교사들이 있다.

2) E-1의 전도란 동일 문화권의 비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함.

이 과제는 큰 일이지만 전세계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결코 큰 일이 아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최전방 사역에 가담하여야 한다. 새로운 선교훈련생들이 서양에서만, 아시아에서만, 아프리카나 남미에서만 와서는 안된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연합해야 한다.